



10월 4주차 |

주간 인도네시아

시장 동향 및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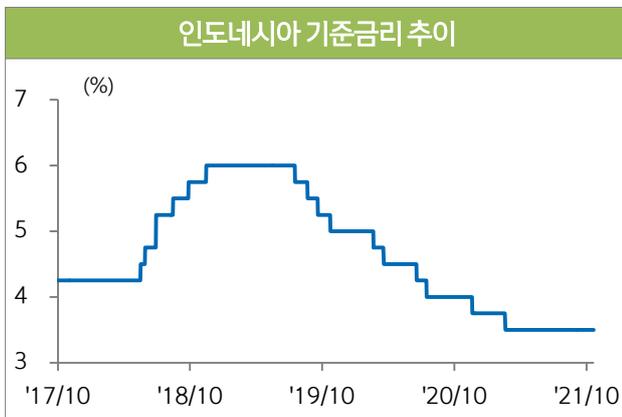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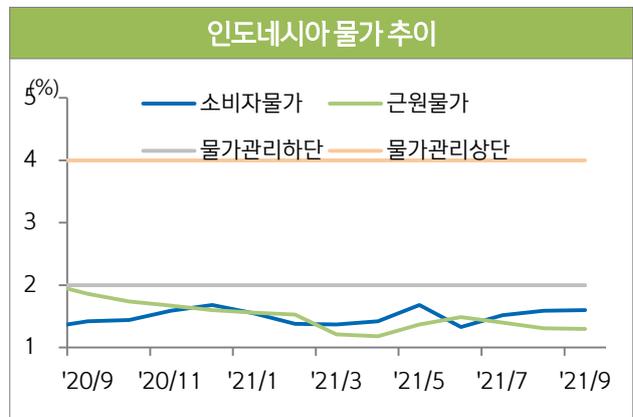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경제 및 금융시장 이슈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금융 안정성 유지와 경제 회복 지원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금리 동결

-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10/19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다시 한번 동결.** 인도네시아 9월 제조업 PMI와 소비자 신뢰지수가 반등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연간 목표대비 부진하였던 성장을 개선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결정
- ▶ 인도네시아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대비 1.6%로 전월의 1.59% 대비 상승하였으나 근원소비자물가는 전월의 1.31%보다 하락한 1.3%를 기록. 중앙은행과 정부의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인 2~4%를 지속 하회하고 있음. 주요 선진국들이 항만, 육상 물류 차질로 인해서 소비자물가지수가 높은 수준이 유지되는 것과는 달리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코로나19 델타변이로 인한 물류 차질보다 수요의 부진이 더 크게 나타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자 물가 상승이 소비자 물가로 충분히 전가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 물가 측면에서 판단하였을 때 경기 과열 우려가 낮아 다른 신흥국들과는 달리 기준금리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낮은 상황**
- ▶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으로 인해서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발표 가능성이 높아지고 2022년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반영하며 미국 채권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금리 및 루피아화 환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음. **미국의 긴축 기조에 따라 일부 신흥국에서는 통화가치가 하락하고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원자재 수출국들은 최근 원자재 수요 증가 및 가격 상승에 힘입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고, 외환보유고가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이 안정 양상을 보이고 있음.** 현재의 원자재 강세는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안정적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자료: Bloomberg



주간 이머징 증시 동향

구분	주가지수	10.22	10.15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VN	1,389.24	1,392.70	↓ -0.25	↑ 25.85	919.08 '20/10/29	1,420.27 '21/07/02
인니	자카르타종합	6,643.74	6,633.34	↑ 0.16	↑ 11.12	5,091.82 '20/10/22	6,658.77 '21/10/18
인도	SENSEX	60,821.62	61,305.95	↓ -0.79	↑ 27.37	39,614.07 '20/10/30	61,765.59 '21/10/18
중국	상해종합	3,582.60	3,572.37	↑ 0.29	↑ 3.15	3,224.53 '20/10/30	3,715.37 '21/09/13
	심천종합	2,412.67	2,400.52	↑ 0.51	↑ 3.58	2,160.91 '21/03/09	2,503.85 '21/07/22
홍콩	H	9,356.85	8,966.17	↑ 4.36	↓ -12.87	8,412.72 '21/10/06	12,228.63 '21/02/17
	항셱	26,126.93	25,330.96	↑ 3.14	↓ -4.05	23,966.49 '21/10/06	31,084.94 '21/02/17
한국	KOSPI	3,006.16	3,015.06	↓ -0.30	↑ 4.62	2,267.15 '20/10/30	3,305.21 '21/07/06



주간 이머징 국채 금리(10Y) 동향

구분	10.22	10.15	전주대비(bp)	전년말대비(bp)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베트남	2.18	2.19	↓ -0.70	↓ -39.80	2.14 '21/09/20	2.62 '20/11/04
인도네시아	6.07	6.09	↓ -2.40	↑ 17.90	5.89 '20/12/30	6.80 '21/03/19
인도	6.36	6.33	↑ 3.50	↑ 49.90	5.82 '20/12/04	6.39 '21/10/18
중국	3.00	2.99	↑ 0.70	↓ -15.00	2.82 '21/08/06	3.36 '20/11/19
한국	2.41	2.36	↑ 4.80	↑ 68.60	1.49 '20/10/26	2.43 '21/10/12



주간 이머징 환율 동향

구분	10.22	10.15	전주대비(%)	전년말대비(%)	1년 최저치	1년 최고치
달러-동 (VND)	22,755.00	22,749.00	↑ 0.03	↓ -1.48	22,748.00 '21/10/12	23,184.00 '20/11/03
달러-루피아 (IDR)	14,123.00	14,075.00	↑ 0.34	↑ 0.52	13,895.00 '21/01/04	14,660.00 '20/10/22
달러-루피 (INR)	74.90	75.26	↓ -0.48	↑ 2.50	72.33 '21/02/24	75.52 '21/10/12
달러-위안 (CNY)	6.39	6.44	↓ -0.79	↓ -2.18	6.37 '21/05/28	6.73 '20/10/28
달러-원 (KRW)	1,177.04	1,182.32	↓ -0.45	↑ 8.33	1,081.81 '20/12/04	1,198.85 '21/10/12

주요 뉴스





인도네시아 무역부,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 8배 증가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무역부에서는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이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것이며, 전자상거래 뿐만 아니라 B2B, 여행, 보건, 금융 부문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디지털 전환으로 디지털 경제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음

-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가 2030년까지 현재의 632조 루피아 수준에서 4,531조 루피아 수준으로 8배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2030년에도 전자상거래 부문이 디지털 경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인 1,908조 루피아를 차지하면서 전체 디지털 경제의 33~34%를 차지할 것이라고 하였음. 장관은 전자상거래 부문 이외에 B2B 형태의 공급망 및 물류 관련된 디지털 전환 부문이 763조 루피아, 13%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온라인 여행과 관련된 부문이 575조 루피아로 10% 정도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여기에 기업 서비스의 디지털 제공이 529조 루피아로 9%를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4% 수준에 불과하지만, 2030년이 되면 인도네시아 경제 자체는 현재의 15,400조 루피아 수준에서 2030년에 최소 24,000조 루피아로 증가하는 것에 있어서 디지털 경제가 주요 동인이 될 것으로 보았음. 현재의 전자상거래에 이어 금융, 여행, 교육, 보건 등의 모든 분야들이 디지털 경제에 포함되게 될 것임.
- 현재 1.97억 명의 인구로 전세계 4위 인터넷 접속 인구를 보유한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2030년이 되면 인터넷 사용자가 2.5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따라서 총 상품 가치(GMV)는 ASEAN 어느 국가에 비교해서도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임.



조코위 대통령, 2023~2024년 경 전기차 생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2023~2024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채굴에서 제련, 배터리, 전기차 생산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산업 체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모든 광물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2023~2024년이면 전기차 생산이 실현될 것이며, 니켈 관련 하류산업 부문으로의 확장이 완성될 것이라고 하였음. 대통령은 이해관계자들에게 니켈 원광의 수출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음. 니켈이 배터리 양극재 생산, 스테인리스 스틸 생산 및 리튬 배터리 생산 등 자동차 산업과 관련하여 핵심이 되는 원료이기 때문에 제련, 가공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조코위 대통령은 이러한 니켈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방침은 보크사이트와 구리원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발언하였음. 원광의 수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임. 니켈의 경우에 전기차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으로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산업간 협조를 부탁하였음.
- 모든 인도네시아산 원자재들이 부가가치를 얻어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이해관계자들에게 강조하면서, 국영기업들과 민간기업들 및 인도네시아에 대한 투자자들에게 단순히 원자재만 얻어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안된다고 강조하였음. 예를 들어 강판 제조 국영기업인 PT Krakatau Steel에 대해서는 강판의 수출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산업과 협력해야 하며 생산된 열연 강판이 단순 프레임에 그치지 않고 차체를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하였음.



조코위 대통령, 외화 유출 축소를 위해 바이오디젤 생산 증가 요청



❖ 요약 및 시사점

조코위 대통령은 팜오일에 기반한 바이오디젤 공장의 확대와 관련하여 바이오디젤의 사용을 통해 수입을 대체하여 외화 유출을 막고, 인도네시아 경제의 고부가가치화를 증진해야 한다고 하면서 목표수준을 제시하였음. 바이오디젤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원자재의 고부가가치화가 현재 정책의 핵심임

- ▶ 조코위 대통령은 56조 루피아에 달하는 외화 유출 절약을 위해서 디젤 수입을 줄이고, 국내 바이오디젤의 생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였음. 국내에서 바이오 디젤의 생산을 늘리고 그것을 일반 디젤과 혼유하여 사용한다면, 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서 2020년에만 해도 38조 루피아의 수입을 대체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면서 2021년에는 56조 루피아의 대체효과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 ▶ 인도네시아는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팜오일을 충분히 생산하고 있음. 대통령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생산량은 매년 5,200만 톤에 달한다고 하였음. 충분한 원천에 기반하여서 바이오디젤 이외의 에너지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연료 수입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 팜오일 공급자들과 다른 산업들이 팜오일을 바이오 디젤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서 참여해줘야 한다면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여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다시 한번 천연자원과 관련한 하류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부가가치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음.
- ▶ 또한 국내 바이오 디젤의 생산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팜오일 가격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것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 인도네시아에서 팜오일을 국내 용도로 사용하고 해외 수출량을 조절하면서 가격 안정성을 가져오고 이것이 다시 수출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내고 있음.
- ▶ 조코위 대통령은 바이오디젤 이외에도 인도네시아에 풍부한 다양한 원자재와 관련한 제련, 정련, 처리 공장들을 지어나갈 것을 독려했음. 니켈, 구리 등 각종 원자재들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임.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는 Freeport Indonesia와 함께 동부 자바 Gresik 지역에 매년 170만 톤의 구리 컨센트레이트를 처리할 수 있는 제련 공장을 건설하고 있음. 이것이 완공되면 매년 60만 톤의 정련 구리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 인도네시아 국내업체들이 많이 참여하여서 원자재 중심의 수출에서 중간재, 최종재 형태의 수출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였음.

(출처 : Antara News)



국가개발계획부,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린 경제를 강조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는 2060 탄소 중립이라는 방향을 정한 가운데, 코로나19에서의 회복 과정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 수행을 동반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갈 것이며, 이러한 내용이 중기 경제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국가개발계획부에서 발표

- 그린 경제가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인도네시아 경제에 있어서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국가 경제 개발 계획부 장관이 발표하였음. 탄소중립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그린 경제에 대한 온라인 행사에서 장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높은 경제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하였음. 코로나19 일컫는 경제 및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인도네시아 변화 요구에 대해 강조하면서 인도네시아 경제 회복은 코로나19 이전의 성장 궤적을 되찾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면서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단순히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는 수준을 넘어서 더 개선된 수준으로 나아가는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고 장관은 강조하였음.
- 저탄소 경제로의 발전이 2020~2024 중기 개발 계획에 있어서 국가 최우선 과제로 정해진 것이라면서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그린 경제의 구현이 중점 과제라고 하였음.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그린 관련 일자리가 창출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구조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발언과 함께 탄소중립 개발 이니셔티브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2060년에 완전한 탄소 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달성 시나리오들을 발표하였음.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기반하여 정책 담당자들이 탄소중립 달성 과제 수행방안을 도출해달라고 하였음. 정책 당국자 이외에도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투자에 나서달라는 것도 강조하였음.



중앙은행장, 2021년 경상수지 적자 전망 -0.8~0%으로 상향 조정



❖ 요약 및 시사점

주요 원자재들의 수출 호황에 힘입어서 인도네시아 대외 부문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가격 랠리에 힘입어 높은 대외건전성 기록하였던 시기에 육박하는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로 안정적 금융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음

- 중앙은행장은 2021년 인도네시아 경상수지 적자 전망을 GDP대비 -1.4~-0.6% 수준에서 -0.8~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였음. 2022년까지도 경상수지 적자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인도네시아 대외 건전성이 개선된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총재는 설명하였음. 올해 3분기의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3분기에는 2009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32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덕분이라고 설명하였음.
- 이러한 무역수지, 경상수지 개선의 배경은 팜오일, 석탄, 유기화학물질, 철광석 등의 핵심 원자재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힘입어서 국내 경제가 개선된 것이 바탕이 되었음. 이러한 흐름에 맞춰 자본수지도 외국인 투자자금들이 유입되면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였음. 3분기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만 해도 13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고 설명하였음. 그리고 10월 들어서도 10월 15일까지 15일간 2억 달러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입되었음.
- 2021년 9월 외환보유고는 1,469억 달러를 기록하여서 8.9개월치 수입금액 결제 가능 및 8.6개월치 수입금액 / 국가 대외부채 상환 가능한 수준을 달성하고 있고, 이는 3개월 초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제 기관들의 대외 건전성 기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임.



인도네시아 정부 탄소 저장을 위한 6개 후보지 검토 中



❖ 요약 및 시사점

인도네시아 정부는 2060 탄소중립이라는 과제와 함께 석유, 가스 생산을 높여서 수입을 대체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동시과제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CCUS 등의 방법으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없애는 방식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으며, 높은 저장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음

- 에너지 광물자원부는 환경 변화 관련 재앙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진행하는 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CCUS) 사업과 관련하여 6개 후보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첫번째 프로젝트는 중부 자바 Gundih 지역에 반동 공대와 J-Power, Janus 등이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 CCUS 사업에 더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석유 생산 증진(CO2-EOR) 사업인 Sukowati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이 프로젝트는 Pertamina EP가 Japan Petroleum Exploration Co. Ltd(Japex)와 석유가스 연구소(Lemigas)가 참여하여 진행하고 있음. Japex와 Lemigas는 limau Biru 유전지대에 CCUS와 EOR을 적용하는 MRV 방법론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음.
- 이외에 다른 2개의 프로젝트들은 반동공대와 Janus가 진행하는 Sink Match 프로젝트와, BP Berau Ltd와 반동공대가 Tangguh에서 개발중인 CCUS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였음.
- Gundih, Sukowati, Tangguh에서 진행되는 3개의 CCUS 프로젝트들은 미래에 5천만톤 상당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현재 인도네시아의 CCUS 가능 용량은 1.5 기가톤으로 고갈된 석유, 가스전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 가스 부문의 개발사업(상류부문)과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있음. 석유, 가스의 생산을 늘리는 것의 목표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에게 있어서 인도네시아 에너지 안정성을 유지하고, 수입 석유,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임. 석유, 가스 생산량은 늘리면서 이산화탄소배출은 줄이는 동시 과제를 해결해야 함. 인도네시아 정부는 2030년까지 日 10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日 10억 Bcf 수준의 천연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